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의 당신화 및 전설로의 변용양상**

권태효*

〈차례〉

1. 머리말
2. 김통정이야기의 역사적 배경
3. 당신화에 변용된 김통정이야기의 양상과 성격
4. 전설에 변용된 김통정이야기의 성격과 의미
5. 마무리

1. 머리말

김통정은 제주도에서 여·몽연합군에 대항해 끝까지 항전을 벌였던 삼별초의 우두머리로 역사적 인물이다. 하지만 제주도에서 그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만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신앙대상인 堂神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민중영웅의 모습으로 전설의 주인공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김통정이야기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이야기일 수 있고, 당곳에서 신격을 섬기는 당신화로서의 이야기일 수 있고, 민중의 의식을 담은 채 전설적 인물로 변용되어 비범한 행위를 하는 인물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

* 경기대 국문과 강사

** 이 글은 study그룹에서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을 읽은데 따른 소산물이다. 김현선 선생님을 비롯해 이경애, 강권용, 김금자, 여봉수, 최자운 등이 참여해서 제주도 당신화를 함께 읽으면서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이 글에서는 여기서 논의된 점들이 부분적으로 수렴되어 있음을 밝혀둔다.

이런 자료이기에 제주도의 김통정이야기는 다음 세 가지 각도에서 함께 논의되어야 마땅하다.

- 가) 역사적 사실
- 나) 당신화로 변용된 이야기
- 다) 전설로 변용된 이야기¹⁾

가)는 김통정이 역사적 실존인물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록을 살펴 그와 삼별초가 제주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통정에 대한 당신화나 전설은 모두 역사적 사실의 설화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주에서의 김통정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뚜렷하게 보여지지 않는다. 다만 『高麗史』 등에 삼별초의 난을 토벌하는 과정에 대한 기록이 잘 나타나고 있기에, 이들 관련기사를 방증삼아 검토한다면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과 삼별초와 제주민과의 관계 등이 어느 정도 드러나리라고 본다.²⁾

나)는 당곳에서 심방에 의해 불려지는 당신화라는 입장에서의 검토이다. 당신화는 제주도 전체의 구비역사인 동시에 堂이 있는 지역의 지역사이며, 지역민들의 신앙생활사이다.³⁾ 김통정은 애월, 성산, 안덕 등 세 지역의 당신화에서 堂神이거나

1) 김통정이야기는 민요로 수용된 사실의 측면에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김통정이 직접 민요 가사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관련된 내용이 아주 단편적이거나 민요로 간존하고 있어 김통정이야기와 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요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킨다면 지나치게 번다한 논의가 될 수 있기에, 이 글에서는 민요 자료는 김통정이야기를 살피는데 있어 보조 자료로 이용하고자 한다.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민요에 대한 검토는 박상규의 「항파두리토성의 전설적 민요에 대하여」(『한국민요학』 1집, 교문사, 1991)라는 글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여기서는 애월의 항파두리토성에 얽힌 대몽항쟁의 역사와 관련된 민요를 어학적인 면과 민속학적인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연구이기보다는 보고서 형식을 띠고 있고, 온전한 사실 채록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박상규선생에 의하면 몇 차례 거듭해서 이에 대한 사실을 채록하고자 시도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여타 민요조사 자료집에서 이런 내용의 민요를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본고에서는 박상규의 글을 참고로 하여 언급하도록 하겠다.

2) 삼별초의 대몽항쟁에 대한 역사학계의 논의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특히 삼별초의 제주항전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다음 글들을 주로 참고한다.

김상기, 「삼별초와 그의 난에 대하여」, 『동방문화교류사논고』, 을유문화사, 1948.

김정신, 「제주민의 항쟁」, 『고려 무신정권기 농민·천민항쟁 연구』, 고려대출판부, 1991.

邊昇圭, 『濟州道略史』, 제주문화, 1992.

윤용혁, 「고려 삼별초의 제주항전」, 『제주도연구』 11집, 제주도연구회, 1994.

3) 김현선, 「제주도 안덕면 당신본풀이의 구비전승적 위상」, 『샤머니즘의 비교문화론』, 비교문화연구소 7회 학술심포지움 발표요지, 1999. 3. 27. 이 글에서 제주도 안덕면의 사례를 들어 당신화가 이런

또는 당신들에게 징치되는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하면서도 각기 지역이나 신화마다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 이들 자료를 전체로 묶어 비교해서 그 성격을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이질적인 면모를 보이는 자료의 변이양상 및 그 까닭을 자료가 전승되는 지역성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당신화 자료는 당신화 홀로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 전설과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당신화에서 불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전설과의 관련하에 이해할 때 보다 그 자료의 성격을 선명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다)는 전설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야기되는 김통정 자료에 대한 검토이다. 전설에 수용된 김통정은 일반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승되기에 당맨심방이라는 특수계층에게서 전승되고 있는 당신화보다는 훨씬 자세하게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고 그 내용도 당신화에 수용되지 않은 더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범위나 폭도 당신화보다는 훨씬 넓다. 따라서 당신에 대한 내력담 및 신앙민들과 당신과의 관계를 문제삼는 당신화와는 또다른 의식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사람들이 김통정을 어떻게 인식하면서 이야기로 변용시켜 나가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김통정이야기의 이들 세 가지 자료형태는 각기 그 자료로서 나름의 의미를 지니지만 서로 관련양상이 뚜렷하고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다루어야 한다. 그런데 김통정이야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처럼 세 가지 각도에서 논의된 선행연구가 있다. 현길언의 『제주도의 장수설화』가 그것으로, 그는 김통정이야기를 다루면서 역사적 기록과 무가, 전설 자료를 개략적으로 검토하고는 그 특징으로 김통정이 신이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과 제주도민의 갈등양상이 잘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⁴⁾ 이 점은 분명 당신화와 전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면모이다. 그러나 김통정설화를 이렇게 몇몇 자료에서 겉으로 드러나는대로만 이해하고 말 것은 아니다. 그는 역사적 기록으로 『高麗史』元宗條 기사 중 삼별초의 토벌 대목을 들고는 삼별초군이 제주에 들어와 성을 구축하고 군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제주민들과 심한 갈등이 있었을 것이라고 역사적 정황을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양상이 특히 안덕의 광정당본풀이에서 토착당신 삼형제에게 징치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4) 현길언, 『제주도의 장수설화』, 홍성사, 1981, 142~148면.

김통정의 모습으로 그 갈등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과연 그런지 의문이 적지 않다. 먼저 역사적 기록을 살펴볼 때 제주민들은 삼별초의 入島를 도왔고 그들에게 호의적이었으며, 삼별초는 이전의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들처럼 제주민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주민과의 갈등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광정당본풀이에서 김통정이 토착당신들에게 징치되는 모습은 전설이나 애월의 당신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상으로 중국에서 보낸 장수나 김방경의 부하장수들에 의해 징치되는 모습이 지역적으로 변형되어 나타난 면모라는 점이다. 곧 자료에 대한 포괄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의 결론이라는 점에서 재론을 필요로 한다.

이런 입장에서 이 글은 좀더 폭넓은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당신화와 전설의 자료를 모아 전체적으로 비교검토하면서 김통정이야기에 대해 이전까지와는 다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쓰여진다.

2. 김통정이야기의 역사적 배경

삼별초의 제주항전은 역사적 사실이다. 김통정이야기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야기이기에 역사적 기록을 통해 당시 제주민들이 김통정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고 삼별초의 항전에서 어떤 입장에 섰었는지, 그리고 삼별초가 제주를 거점으로 하면서 지역민들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살피는 것이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이 점을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안덕면의 광정당본풀이에서 토착당신들에게 김통정이 징치되었다고 하여 김통정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부정적인 존재로도 아울러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과 전설에서 김통정 때 도성을 쌓을 때 흉년이어서 人糞을 먹었다고 한다든가⁵⁾ 지렁이나 벌레를 잡아먹었다고 하는⁶⁾ 등 제주민이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부분이 설화에 나타나고 있어서, 김통정에 대해 보이는 상충된 인식양상의 반응을 역사적 기록을 들어 보충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곧 삼별초가 제주를 거점으로 활약하던 시기에 제주민들에게 가혹하게 대했으며 수탈을 한데서 이런 김통정의 부정적 형상화가 비롯된 것인가를 검토할 필요가

5) 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114면

6) 「회뿌리샘물」, 임석재 전집 9, 『한국구전설화』, 평민사, 1992. 204면.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에 초점을 두어 역사적 정황을 살피고자 한다. 첫째는 당시 제주민들이 삼별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점과 둘째 삼별초가 제주항전 당시 제주민들을 수탈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군대를 유지하였던가 하는 점이다.

먼저 제주민들의 삼별초에 대한 인식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탐라는 高·良·夫의 三姓을 중심으로 했던 씨족사회가 4-5세기 경 국가체제로 성립되었다.⁷⁾ 하지만 국토가 척박하여 농업생산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인구도 적어 강력한 고대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삼국시대부터 백제와 신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필요한 물자를 교역하여 국가체제를 존립시켰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예측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반기를 들고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가 양국의 침입 위협으로 굴복하는 것으로⁸⁾ 보아 독립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 때는 탐라를 郡縣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 성종 때 민정을 살피는 勾當使가 파견되었고⁹⁾ 肅宗 10년에는 완전히 고려의 군현으로 편입되었다.¹⁰⁾ 그러면서 고려 조정에서 수령이 파견되었으나 이전 통치체제였던 星主와 王子를 중심으로 하던 지배체제를 유지하도록 했고 그 지위의 세습 및 공물을 제외한 조세의 사용을 허용하였다.¹¹⁾ 그런데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점차 정치·경제·형벌 등 모든 것을 장악하여 전횡하면서 고려 조정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성주와 왕자를 제외한 기존 토호세력 및 주민들과 심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은 탐라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중앙정부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과 육지사람들의 제주민에 대한 우월감 등이 작용하여 제주민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함부로 수탈하였다.¹²⁾

탐라인들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에 의해 제주민들이 수탈당하는 면모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의 기록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7) 박용후, 「탐라 부족국가의 성립」, 『제주도연구』 3집, 1986.

8) 『三國史記』 百濟 東城王 2年 8月條, 新羅 文武王 19年 2月條 (이정신, 같은글 137면 참조)

9) 『高麗史』 9, 文宗 33年 11月 壬申條.

10) 『高麗史』 57, 地理 耽羅縣.

11) 이정신, 같은글, 138~139면 참조.

12) 이정신, 같은글, 139면.

제주도의 옛 풍속에 무릇 남자는 15세 이상이 되면 해마다 콩 一斛을 바치고 衙門의 衙前 수백명은 매 해에 각각 말 한 필씩을 바쳤다. 이를 副使와 判官이 나눠 가지니, 이런 까닭으로 이 고을을 다스리는 자는 비록 가난하더라도 모두 부자가 되었다.¹³⁾

이처럼 제주에 지방관이 파견되면서 관아의 경비나 그밖에 소요되는 행정업무의 비용을 충당시킨다는 명분으로 과중한 조세를 부과하였던 것이다. 삼별초의 난에 당면했었던 元宗 때의 기록에서도 지방관의 탐학이 얼마나 심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다.

判禮賓省事 羅得璜을 濟州副使로 삼았다. 이에 앞서 宋佖가 제주의 수령으로 있다가 재물을 탐하여 면직되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주가 지난 날에는 작은 도둑을 만났는데 지금은 큰 도둑을 만났다고 하였다.¹⁴⁾

끊임없는 수탈의 대상이 되어 고통을 받던 제주민들이었기에 이와 같은 학정에 반발해 크고 작은 반란들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으며, 그들의 요구사항은 대체로 수령들의 수탈과 학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전라안찰사가 달려와 아뢰기를 탐라사람들이 縣令과 縣尉의 포학에 시달려 반란을 일으켜 말하길 만약 陟卿을 현령으로 삼는다면 당장 무기를 버리겠다.¹⁵⁾

(제주) 貢賦가 번거롭지 않아 백성들이 생업을 즐길 수 있었으나 요즈음 관리들이不法하여, 적의 우두머리 良守 등이 반란을 일으켜 守宰를 축출하였다. 王이 冬曦에게 명하여 符節을 가지고 가서 宣諭토록 했더니 적들이 자진해서 항복했다.¹⁶⁾

이런 지방관의 탐학 때문에 야기된 반란은 무신정권 때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煩石과 煩守 등의 난이 있었고 元宗 8년에도 草賊 文幸奴의 亂이 있었다.¹⁷⁾ 제주민들은 이런 상황이었기에 중앙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컸고, 중앙에서 파

13) 『高麗史節要』 17, 高宗 46年 10月條.

14) 『高麗史節要』 18, 元宗 元年 正月條.

15) 『高麗史』 99, 列傳 崔陟卿.

16) 『高麗史』 18, 世家 毅宗 22年 11月 丁丑條.

17) 이런 거듭된 亂의 전개는 이정신의 글(같은글, 139~147면 참조)에서 자세하게 살피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난이 고려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의 학정에 대한 반발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탐라가 고려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분리주의적 성향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율령혁은 문행노를 草賊이라 한 것으로 보아 官의 경제적 탐학 등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영락

견된 지방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다. 제주민의 이런 의식은 삼별초의 제주 入島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곧 삼별초가 진도에서 패해 제주도로 들어갈 때 제주민들은 관군에게는 등을 돌리고 삼별초를 도와 제주에 거점을 마련하도록 해준 것이다.

(金須는) 抄軍을 거느리고 탐라에서 高汝霖을 만났는데, 이 때 賊은 진도를 지키는 라고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에 밤낮으로 보루를 축조하고 병기를 마련하여 삼별초군이 도래하는 것을 막으려 했으나 守土者(제주민)가 머뭇거리며 협력하지 않아 그들이 다른 길로 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金須는 평소 大義로서 사람들을 격려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감격하고 그 용력도 백배하여 싸움에 임해 다투어 올라 적의 선봉부대는 거의 섬멸하였으나 탐라인들이 그들을 도왔으므로 결국 중과부적으로 마침내 高汝霖과 함께 적진에서 敗沒하여 돌아오지 않았다.¹⁸⁾

이처럼 제주민들은 고려 조정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에서 있었고 삼별초에게는 우호적이었다. 삼별초가 이렇게 제주민의 도움 속에 제주에 입도했음은 분명하지만, 그 이후에 그 곳을 거점삼아 활약을 하던 때에도 제주민들이 삼별초의 활동에 적극 가담했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들이 제주에 있는 동안은 지역민에게 수탈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高麗史』 列傳 金方慶條에 보이는 다음 기록을 통해서 제주민들이 삼별초에게 적극 협력하였다는 것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김방경이 여러 장군들을 지휘하여 자성으로 들어가니 선비들과 여인들이 소리내어 통곡하였다. 김방경이 말하기를 다만 괴수들만 죽이려 할 뿐이니 너희들은 겁내지 마라 하고 그 우두머리인 金允紱 등 6명을 붙잡아 네거리에서 참형에 처하였다.¹⁹⁾

김방경의 軍이 삼별초의 최후 항전지였던 항파두리城에 입성했을 때 선비와 부녀자들이 겁을 먹고 통곡을 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단순하지 않다. 그만큼 제주민들은 삼별초군에 적극 협력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麗蒙軍에게는 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겁을 먹고 통곡을 했다는 사람들이 麗蒙軍에 대항하

해버린 집단의 난으로 파악하고 있다.(윤용혁 : 같은글, 73면)

18) 崔蕞, 『金文正公墓誌』, 『拙菴千百』, 遂行抄軍 亟會汝霖于耽羅 卽賊猶保珍島未至 於是 晝夜築堡設械 謀斷來道 使無得入 而守土者 首鼠不爲力 賊由他道至不覺 侍中素以大義勵士卒 有宣其勇 奮呼爭登殺 賊先鋒殆盡 然而土人資敵 衆寡不侔 竟與高將軍歿陳 不還.(이정신, 같은글 152면 註42 재인용)

19) 方慶麾諸將入子城 士女號哭 方慶曰只誅巨魁耳 汝等勿懼 執其魁金允紱等 六人斬于通街.

여 직접 전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선비와 부녀자였다는 것은 이 곳 사람들 대부분이 삼별초에 가담 또는 적어도 동조하고 있었음을 알게 한다. 이 점은 애월에서 전승되는 민요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진혼을 빌어 … 생나무가지나 풀잎을 던지면서 고이고이 잡서/저주하는 맘 … 침략자를 향해서 침 뱉고 돌 던지며 저주”라고 해서 여몽연합군에 의해 무참히 죽어간 영혼을 위로하고 달래는 내용의 민요가 있다.²⁰⁾ 김방경條의 기록이나 이런 민요 내용은 제주민들이 삼별초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도왔던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판단된다. 이런 까닭에 삼별초의 우두머리였던 김통정은 성산면에서 지역민들에게 堂神으로 신앙시킬 수 있었고, 당신화나 전설에서 야래자형 출생을 보이며 아기장수적 면모,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수, 제주도민을 위해 먹을 물을 마련해주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형상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안덕의 광정당본풀이에서 과양당·선양당·광정당의 토착당신들에게 징치되는 김통정이 나타나는 점과 전설 자료에서의 김통정 시절의 궁핍한 생활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먼저 광정당본풀이에서 세 토착당신들에게 징치되는 김통정의 모습은 다음 章의 堂神話를 비교하는 데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었지만, 지역적인 변이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여타의 당신화나 전설에도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가 그대로 전승되는데 이들 자료에서는 김통정을 징치하는 존재가 토착당신이 아니라 중국에서 온 세 장수나 김방경의 부하장수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광정당본풀이가 전승되는 안덕은 삼별초의 향전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한라산 남쪽 지역이고,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김통정에 대한 이야기가 온전하게 전승되는 곳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²¹⁾ 곧 광정당본풀이는 당신화의 형성이나 전승과정상 어떤 착종이 있었거나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제주민들이 삼별초에 적극 협력했다는 기록물과는 달리 제주를 거점으로 삼으면서 제주민들에게 과중한 세와 부역을 요구하여 지역민들과 심한 마찰이 있었고 이런 갈등이 당신화 형태로 표출된 것일 수도 있겠다.²²⁾ 이 점은 앞

20) 박상규, 같은글, 181면.

21) 현용준은 安德에서 김통정전설을 채록하면서 “김통정이야기는 북군 등지에서 많이 들어오던 이야기나 이 곳에서 어떻게 전해지는가 호기심이 나서 들려달라고 청했다”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이 김통정이야기가 주로 전승되는 곳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계』 9-3, 721면) 한편 이 전설 자료는 광정당본풀이와는 거리가 있고 애월 쪽의 전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22) 현길언, 같은책, 145면. 이런 점들이 삼별초와 제주민들과의 갈등 요소로 작용했음을 지적하고

서 언급했던 전설 자료에서 김통정 시절 성을 쌓을 당시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 받는 대목들이 전해진다는 점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다면 역사적 기록과는 달리 이면에 묻어 있는 당시 민중들의 의식이 반영된 것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곧 사람들이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성을 쌓는 모습은 삼별초가 지역민들에게 과중한 세금과 부역을 부과하고 압제를 가했기 때문이고, 이런 기반에는 제주를 거점으로 많은 군사들이 활동하기 위해서는 많은 군량미와 군비를 조달해야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별초가 실제로 군비를 조달했던 것은 지역민들을 수탈한 돈이나 곡식은 아니었다. 당신화와 전설에서는 한결같이 김통정 시절에는 돈이나 세금은 걷지 않고 재 닷말과 비 한자루씩을 걷었다고 한다. 그런데 재 닷말과 비 한 자루라는 것은 생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은 항전을 하면서 적을 교란하기 위한 연막의 장치였을 뿐이며, 당시의 어수선한 세상을 나타낸다가 나 과세의 과중함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다.²³⁾

삼별초는 그들의 군비를 고려의 조세운송선을 공격해 그것을 포탈해서 조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문헌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高麗史節要』元宗 13年 6月條를 보면 “석달(3, 4, 5월) 동안 삼별초가 조세운송선을 공격해서 얻은 곡식이 3,200여석이나 된다”고 했다.²⁴⁾ 또 같은 해 5월조 기사에도 “제주에서 나온 盧孝梯의 보고에 의하면 삼별초가 배 11척에다 군사 390명을 나누어 싣고 경상도와 전라도의 조세운송선을 빼앗으려 한다”는 보고를 기록하고 있고,²⁵⁾ 원종 13년 8월에도 “삼별초가 전하는 전라도 貢米 8百石을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⁶⁾ 이런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의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조세를 부과하지는 않았으며, 그 포획량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들이 주둔했던 곳의 주민들을 오히려 먹여살릴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따라서 중요한 갈등 요소가 사라

있으며, 「제주전설과 제주사람들의 삶의 양식」(『제주문화의 재조명』, 일념, 1991, 243면)에서도 김통정설화를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제주역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원종 때에 삼별초군의 입거 후 막대한 노역과 물자가 삼별초군에 의해 징발되었다”고 보고 있다.

- 23) 현길언은 이러한 재를 걷어 뿌리고 말꼬리에 비를 매달아 달리는 상황을 삼별초의 입성 후 온 성이 어수선해진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한다.(같은글, 145면) 하지만 당신화나 전설의 자료에서 이것의 용도는 김통정이 있는 곳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어수선한 세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 24) 凡前後所 撰奪船二十隻 穀米三千二百餘碩(『高麗史節要』·『東國通鑑』元宗 13年 6月條).
- 25) 今有盧孝梯 嘗附于逆賊 是月十四日逃出來告云 逆賊以船十一隻 分載兵三百九十人 謀取慶尙全羅道漕船(『高麗史節要』·『東國通鑑』元宗 13年 6月條).
- 26) 壬辰 三別抄掠奪全羅道貢米八百碩(『高麗史節要』·『東國通鑑』元宗 13年 8月條).

지게 된다. 이전의 지방관이 제주민들을 수탈의 대상으로 여겨 가혹하게 다룬 것에 큰 반발을 했던 지역민들이었기에, 이것을 외부로부터 조달했던 삼별초는 지역민들에게 더욱 호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앞서 김방경이 성에 진입했을 때 선비와 부녀자들이 통곡을 하면서 두려워했다는 점, 전설에서 돈이나 곡식을 건지 않았다는 점²⁷⁾과도 상통한다. 따라서 전설에 나타난 성을 쌓으면서 人糞을 먹을 정도로 먹을 것이 없다거나 벌레를 잡아먹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 인식양상은 김통정과 삼별초의 지역민에 대한 수탈과 착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삼별초와 무관하게 그 무렵쯤 있었던 제주민들의 아주 어려웠던 생활상을 전설을 구술하면서 당시의 중요한 사건이었던 삼별초의 항전과 연결시켜 막연하게 김통정 시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실제로 『고려사』에는 삼별초 난이 평정된 직후에 제주민들이 흉년으로 겪었던 참혹한 생활상을 기록한 부분들이 있어 주목된다. 『高麗史』五行志에는 “忠烈王三年三月 耽羅大饑 民有閤門而死者”라고²⁸⁾ 해서 한 집안의 모든 식구가 모두 굶어죽었을 정도로 큰 흉년이 들었다고 하고 있다. 충열왕 3년이니 삼별초의 난이 평정된 지 불과 4년 후의 일이다. 『고려사』에는 큰 흉년을 비롯해 자연재해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주에 대한 기록이 이것 뿐이다. 이로 보아 당시의 흉년이 아주 심각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당시에 대한 이야기가 후대로 전승되면서 그 시기를 김통정 시절이라고 단순히 지칭된 것일 뿐 제주민들에 대한 삼별초의 수탈과 학정에서 비롯된 지독한 궁핍상을 이처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주와 관련된 김통정 및 삼별초의 역사적 사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삼별초에 대해서 제주민들은 호의적이었고 비록 적극적인 가담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동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삼별초는 조세선을 포탈하여 군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유지를 위해 제주민들을 수탈하지 않았으며 가혹하게 대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당신화 및 특히 전설에서 김통정을 긍정적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을 구원해 줄 민중영웅의 염원을 담은 존재로 형상화시키는 것과도 상통한다. 그리고 당신화나 전설에서

27) “김통정(1)”과 같은 자료에서는 김통정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책임질테니 서울에 전상을 올리지 말도록 했고 자신에게도 나락(쌀)을 세금으로 내기 어려울 것이니 재와 빚자루로 내게 했다고 한다.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85.)

28) 『高麗史』 권 제55 志제9 五行3.

는 부분적으로 부정적인 각도에서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전승과정상의 혼탁이나 막연하게 그 시절을 김통정에 붙여 지칭한 데 따른 것일 뿐이고 당시 김통정군의 압제에 따른 상황의 반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는 물론 김통정이 외지인이라는 점에 대한 일부 사람들의 거부감이 다소 작용했거나 삼별초의 난이 평정된 후 官에서 의도적으로 김통정을 부정적 존재로 만들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여하튼 김통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적 기록의 검토나 당신화, 전설 등에서 폭넓게 인정되는 긍정적 존재로서의 면모가 제주민들이 인식했던 참모습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3. 당신화에 변용된 김통정이야기의 양상과 성격

제주도에서 김통정이야기가 당신화로 전승되는 지역은 애월과 성산, 안덕 등 세 곳이다. 이 중 애월은 김통정이야기의 발원지라고 할 수 있고, 가장 풍부한 당신화가 전승되고 있어 그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타 지역의 당신화가 애월의 당신화를 검토하는 데 있어 보조자료에 불과한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각기 뚜렷한 차이가 있으며, 애월의 당신화와는 다른 인식을 바탕으로 독자적으로 생성된 면모를 보이는 당신화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통정에 대한 당신화는 먼저 자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지역별로 검토하여 그 지역의 특징적인 면모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함께 비교하여 달리 나타나는 양상을 해석하고 종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애월의 김통정에 대한 당신화가 중요하지만 본질적일 수는 없고 다른 지역의 것도 아울러 검토할 때 이에 대한 자료의 온전한 실상이 드러날 것이다.

제주도 지역에서 김통정은 당신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후에 그 곳의 당신으로 좌절하게 되는 중국의 세 장수에게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치되고 마는 비극적인 장수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양상은 당신화가 전승되는 지역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산면의 자료에서는 김통정이 당신으로 신앙대상이 되며 뚜렷한 대결양상 없이 김통정의 행적을 중심으로 이야기된다면, 애월면과 안덕면에서는 김통정과 삼형제 장수와 대결이 부각되고 이 과정에서 김통정이 징치되는 양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특히 안덕의 광정당신화에서는 중국의 삼장수와 대결하는 애월

의 당신화와 달리 제주의 토착당신 삼형제에게 징치된다는 점에서 특이한 변형이 이루어진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선 김통정의 존재가 당신화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대상자료는 가장 풍부한 당신화를 싣고 있는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을 중심으로 하고,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을 보조자료로 삼아 참조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

먼저 애월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김통정에 대한 당신화와 전설이 가장 풍부하게 전승되는 지역이다. 김통정의 삼별초가 여몽연합군을 맞아 최후까지 항전을 벌였던 항파두리城이 있는 지역으로, 김통정이야기의 형성이나 전승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며 이야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애월에서는 김통정이 당신으로 섬겨지지 않으며, 오히려 김통정을 징치하는 중국의 삼장수를 당신으로 받들어 모신다. 그리고 김통정이 제주도에 있게 된 것도 대몽항쟁이나 제주민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제주의 우마와 생산물에 욕심을 낸 까닭이라 하고 있어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우선 이 곳의 자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애월에서의 김통정 관련 당신화는 다음 5편이다.

- 가.1. 고내본향①
- 가.2. 고내본향② <큰당>
- 가.3. 고내본향⑤ <신도본향>
- 가.4. 고내본향⑥
- 가.5. 금덕리당

가1, 가2, 가3, 가4는 다같이 고내리 지역에 전승되는 당신화로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중국에서 파견된 삼장수가 김통정을 징치하고 그 지역에 좌정하여 당신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 같은 유형의 자료로 묶을 수 있다. 이들 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내본향①	고내본향②(큰당)	고내본향⑤ (신도본향)	고내본향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나라에서 김통정에게 제주도의 우마를 둘러보게 했으나 김통정이 욕심을 내어 제주를 차지하려 했다. 2. 천자국에서 황서님, 을서님, 병서님을 보내어 잡아오게 했다. 3. 김통정이 성을 견고하게 쌓고 재로 연막을 쳐서 있는 곳을 알지 못하게 했다. 4. 삼장수가 어떤 여인의 말을 좇아 무쇠 성문을 녹이고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 5. 김통정이 바다에 무쇠방석을 던지고 새우로 변신해 있었는데, 삼장수가 협력하여 힘들게 징치한다. 6. 삼장수는 용왕국 막내따님아기에게 반해 그 곳에서 당신으로 좌정하게 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통정의 난리 때 초나라의 황서, 국서, 병서 삼장수가 들어와 김통정을 징치했다. 2. 국서는 천자국으로 돌아갔지만 황서와 병서는 그 곳에 남아 활쏘기로 좌정할 곳을 찾는다. 3. 고내오름을 차지한 황서가 부모에게 불효한 죄로 쫓겨난 용왕국따님애기와 혼인한다. 4. 용왕국따님애기의 돼지고기를 먹은 부정으로 부부간 살림을 가르고 따로 좌정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국에서 김통정을 잡으러 황서국, 국서님, 병서님 삼장수가 입도한다. 2. 한라산에서 활을 쏘아 고내리를 좌정처로 삼는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국 천자국에서 김통정에게 제주의 축산과 각종 생산물의 상태를 알아오라 했으나 그 생산물이 탐나 제주를 차지하려 했다. 2. 김통정은 만리토성을 쌓고 백성들에게 걷은 재로 제주 섬을 감추었다. 3. 천자국의 삼장수가 김통정을 잡으러 성에 들어가려 하나 철문이 견고해서 들어가지 못하자 한계집아이가 그 방법을 알려준다. 4. 김통정이 달아나면서 유대한 아내를 죽인다. 5. 바다에 무쇠방석을 띄웠으나 삼장수가 새와 새우로 변해 김통정을 죽인다. 6. 삼장수가 귀양온 용왕국 막내따님애기에게 반해 그 곳에 좌정하게 된다. 7. 후에 완력좋은 새치영감도 따로 상을 받는 당신으로 함께 섬겨진다.

이런 고내리의 당신화는 표면적으로는 김통정이 부정적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고 중국의 삼장수는 김통정을 징치하는 긍정적 존재로 그 곳에 남아 堂神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여기서 김통정이 제주에서 항전을 한 것은 대몽항쟁과는 무관하며 순전히 제주섬에 욕심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단순히 그의 개인적 탐욕을 채우고자 제주에 자리잡고 있는 존재에 불과하기에 김통정은 징치되어야 마땅한 존재이다. 그리고 이런 김통정을 물리쳤기에 삼장수는 고내리의 당신이 될만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당신화에 반영되어 있는 내면적 의식도 그런가는 의문이다. 앞서 역사적 사실에서 살펴보았듯이 제주민은 김통정군의 입도를 도왔고 아주 호의적이였다. 또한 김방경의 관군이 성을 점령했을 때 부녀자가 두려워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점과도 거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겉으로 이런 양상을 보인 것일 뿐 그 이면에는 또다른 의식을 반영되어 있지 않나 여겨진다. 곧 김통정이 러몽연합군에게 패해 죽음을 당하고, 그 곳에 몽고 및 고려군이 주둔하여 통치하게 되면서 그 역사적 사실과 그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처럼 표면적으로 왜곡되게 표현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의식의 반영에서 중국 삼장수를 당신으로 모시게 했고 당신화에서도 표면적으로는 김통정에 대해 부정적인 존재로 형상화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점은 고내본향에서의 김통정 면모와 관련지어 생각할 때 좀더 분명해진다. 가)4에서는 비록 김통정이 입성한 삼장수를 피해 달아나면서 유태한 아내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전해지던 이야기가 당신화로 축약되면서 그 내용이 모호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 부분을 전설을 통해서 보면 각편 따라서는 김방경군에게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는 아기업개를 김통정이 죽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아기업개는 또한 김통정의 아이를 유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²⁹⁾ 아기업개가 김통정의 아이를 가진 경우는 김방경군에 의해 죽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들 이야기가 혼착되면서 이처럼 김통정이 유태한 아내를 죽이고 달아나는 존재로 그려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통정을 잡으러 온 중국의 삼장수는 뛰어난 능력을 지녔으나 김통정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김통정은 집집마다 거둔 재로 연막을 쳐서 제주섬을 감추어 그가 있는 곳을 삼장수사 찾지 못하게 하는 능력을 지녔다. 이것은 서귀본향에서 지산국과 제주로 달아난 바람운이 안개를 피워 고산국에게 그들이 있는 곳을 감추는 것과 대응한다. 또한 삼장수의 스스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을 쌓고 있었다. 비록 아기업개가 무쇠성문을 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어 결국 성이 함락되기는 했지만 이또한 김통정이 우위에 있었음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

29) "김통정장군"(현용준, 같은책, 107~113면).

다. 여기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는 얘기업개는 호국여산신설화의 여산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호국여산신설화에서 여산신은 평범한 노파나 漂母로 화해서 적을 물리칠 방법을 알려주거나 오히려 그 반대로 적에게 난공불락의 성을 공격할 정보를 주어 아군이 몰살되는 형태로 나타난다.³⁰⁾ 이와 관련된 기사는 『고려사』에도 확인되는데 元宗14년 耽羅에서 謀叛한 삼별초의 난을 토벌할 때 무등산의 陰助之驗이 있었다 하여 春秋致祭를 명했다고 한다.³¹⁾ 곧 삼장수는 정상적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것을 호국신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부분은 전설로도 널리 전해지기에 전설을 살피면서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한편 김통정은 성이 함락되자 삼장수를 피해 바다에 무쇠방석을 던져두고 새우로 변신하는데, 이것은 온몸에 갑옷을 두른 것의 상징이다. 이것은 전설에서는 김통정이 아래자형 출생을 하여 결코 죽지 않는 존재이고 온몸에 비늘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양상이다. 이렇게 삼장수는 김통정을 쉽게 죽이지 못하고, 셋이 새와 새우로 변신하여 어렵게 비늘 틈새로 칼을 찔러넣어 죽일 수 있었다. 이것은 아기장수의 죽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좌절하고 마는 민중영웅의 모습을 한 것이 김통정인 것이다. 이 점은 전설에서 좀더 확인하여 김통정이 날개달린 장수로 나타나고 있다. 곧 민중의 아쉬움을 담은 김통정의 비극적 죽음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내리 당신화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삼장수 위주로 당신화가 전개되고 김통정이 치기되어야 할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실제로 사람들이 위하고 그 능력을 인정했던 대상은 김통정이라는 의식이 담겨있음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고내리의 당신화에서 중국의 삼장수가 용왕국 따님아기에 반해 제주에 남아 활을 쏘아 각기 좌정할 곳을 정하는 양상은 삼성시조신화와 흡사한 면모를 보이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처럼 세 신이 여신과 혼인하고 활을 쏘아 좌정할 곳을 정하는 양상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제주의 전래적이고 토착적인 당신화적 면모인지 또는 삼성시조신화의 영향을 받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인지는 여기서는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고내리 당신화의 배경이 고려시대 삼별초의 난을 배경으로 하

30) 권태효, 『호국여산신설화의 상반된 신격인식 양상 연구』, 『한국민속학』 30, 민속학회, 1998.

31) 庚辰以光州無等山神陰助討賊命禮司加封爵號春秋致祭(『高麗史』世家27 元宗).

는 후대적 형태임을 감안한다면 삼성신화의 영향일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겠다.

가.5의 금덕리당신화는 위의 고내본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당신화에서는 김통정이 당신이 된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김(金)장군이 설립한 당이라 하면서 김통정 시절 산신령의 현몽으로 아무도 잡지 못하는 용마를 잡는 김(金)장수의 행적과 재물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겁탈하는 되놈들을 제 주목사의 도움을 받아 물리쳐서 당신으로 좌정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에서 앞 부분의 용마를 잡는 짐장수는 전설 자료에서는 김통정으로 나타나고 있어, 금덕리당의 당신은 곧 김통정임을 알 수 있다.³²⁾ '김통정(1)'이라는 자료에서 보면 중국의 천자가 제주에서 우는 용마를 김통정에게 잡아오게 하여 김통정이 제 주로 오게 되었는데, 그 말을 아무도 잡지 못하던 것을 말이 물먹는 곳에서 붙잡아 자신의 말로 만들고는 중국으로 귀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김통정이 말을 잡는 방법이 당신화에서는 산신대왕의 현몽에 의한 것인 반면 전설에서는 말 물먹는 곳에 숨어 있다가 잡아타는 형태로 달리 나타나지만 산신대왕의 현몽으로 알려준 것이 어떤 방법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잡지 못하는 용마를 김통정만이 취해서 장수적 능력을 확보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김통정의 아기장수적 면모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다. 김통정은 전설에서 흔히 어깨에 날개가 돋은 아기장수로 이야기된다. 그런데 아기장수전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수반되어 출현하는 것이 용마이다. 용마는 흔히 아기장수의 죽음과 함께 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덕리 당신화에서는 변형되어 짐장군에게 사로잡혀 장수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다. 한 순간에 제주 삼읍을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되놈들을 유인하여 물리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덕리당에서 김통정이 당신으로 신앙되기에 김통정의 뛰어난 장수로서의 면모를 용마를 끌어오으로써 부각시키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후반부의 되놈들에게 재물을 약탈당하고 겁탈당하는 부녀자를 위해 되놈들을 물리치는 내용은 공민왕 때 최영장군이 牧胡들의 난을 토벌하는 과정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공민왕 23년(1374)에 明은 제주의 良馬 2천필을 가려보내라고 하는데 이 때 元 世祖가 양축한 말을 적국인 명에 보낼 수 없다고 하면서 牧

32) 진성기는 이 자료의 주석에서 짐장수를 '김통정장수?'라고 해서 김통정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으나,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1, 607면) 애월면 어음리에서 전승되는 '김통정(1)'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김통정의 행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영돈 외, 『제주설화집성(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31~36면)

胡 石迭里 등이 난을 일으키자 공민왕이 탐라가 고려의 땅임에도 우리의 사신을 죽이고 제주민들을 노예로 하니 그 죄가 크다 하여 최영에게 2만5천의 병사를 주어 토벌하게 하였고, 이 때에는 제주의 屋主와 왕자가 이들 牧胡를 토벌하도록 지원병력을 청하였던 상태였다. 최영은 애월로 들어가 항전하는 목호들을 물리쳤는데, 이 당시 石迭里가 급히 모집한 牧胡軍의 수가 엄청난 것으로 보아 많은 몽고인들이 제주를 자신의 영토로 삼아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³⁾ 이런 상태에서 제주민들이 몽고의 목호들에게 핍박받고 고통을 당했던 것이다. 특히 부녀자들이 이들의 만행에 고통을 당한 모습은 애월의 민요에서도 잘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 놈의 아들 생겨 몽고놈/ 이 놈의 딸 생겨 몽고년”라고 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몽고인들이 제주의 아녀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겁탈과 강간을 자행하면서 행패를 부렸는지를 알 수 있다.³⁴⁾ 금덕리당신화에서 되놈들이 쳐들어와 마을의 재물을 약탈하고 여편네를 겁탈하였다는 것은 이들 목호들의 횡포를 그린 것으로 보이며, 이를 물리치는 최영장군을 애월에서 몽고군과 맞서는 뛰어난 장수로 믿어지던 김통정에게 결부시키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특히 제주의 성주와 왕자가 중앙에 援軍을 청했고 이들이 탐라인들과 함께 목호들을 물리친다는 점에서 김통정이 제주목사의 사령을 빌어 협력해서 함께 되놈들을 물리치는 모습과 대응한다.

그런데 이런 금덕리 당신화에서 흥미로운 점은 김통정을 당신으로 섬기면서도 구체적으로 김통정이라 하지 않고 막연히 짐장수라고 하여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김통정을 신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고내리 당신화에서 중국의 삼장수가 당신으로 좌정하여 모셔지는 양상과는 상통하는 것으로, 삼별초의 난이 평정된 후 이 곳에 몽고군 및 고려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그들을 의식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여겨진다.³⁵⁾ 이렇게 막연히 짐장수라 하여 섬겨지다가 후에 목호들을 토벌하는

33) 김상기, 『고려시대사』, 서울대출판부, 1985, 605~606면, 변승규 ; 같은책, 43~44면참조.

34) 박상규, 같은글, 180면.

35) 애월의 당신화가 이처럼 여공군이 주둔한 데 따른 두려움과 같은 것이 작용해서 표면적으로 긍정적인 면모가 약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신화를 지나치게 단순하고 피상적으로 파악한 것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화의 배경이 삼별초의 제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생성된 것이 분명하고, 또한 김통정을 칭찬한 중국의 삼장수를 당신으로 섬긴다는 설정 자체가 이런 역사적 사실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한편 전설에서는 이들 삼장수에 대한 긍정적 행적이나 인식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김통정을 비극적 영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뚜렷하여, 이 곳의 당신화가 김통정을 칭찬하는 쪽의 입장이라면 전설에서는 칭찬당하는 김통정의 입장에서 이야기라 할 수 있어 그 의식에 있어 적지 않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

장수의 이야기가 김통정의 영웅적 행적으로 결부되면서 이런 당신화의 모습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애월의 당신화에서는 김통정을 긍정적 신격으로 여기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어 섬기지는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김통정의 당신화가 강하게 전승되는 지역은 동쪽 끝의 성산면이다. 이 지역에서 왜 이렇게 김통정이 당신으로 지역민들에게 섬겨지게 되었는가는 불분명하다. 다만 성산을 중심으로 環海長城이 쌓여져 있는데, 이 성이 역사적으로 삼별초의 항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기는 하다. 『東國輿地勝覽』 기록에 의하면 이 환해장성은 1270년(원종11)에 김수와 김여림이 당시 진도 용장성에서 대몽항쟁을 전개하고 있던 삼별초가 제주로 입도한다는 소식을 입수한 관군이 먼저 제주에 들어와 삼별초의 제주입도를 막기 위해 해안선을 따라 약 300여리에 걸쳐 쌓은 성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성을 쌓았다고 하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을 들어 삼별초가 쌓았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지만,³⁶⁾ 여하튼 환해장성이 삼별초와 관련이 있는 것임은 분명하다. 이런 환해장성은 현재도 성산면 온평리와 신평리 해안에 성곽이 남아 있다.³⁷⁾ 기록대로 이 성의 축성과정에서 고려정부군이 이 곳 지역민들에게 가혹하게 부역을 강요한 탓에 그 반감이 오히려 이처럼 김통정을 신격화하는 당신화를 형성시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삼별초의 최후 항전지였던 애월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김통정이 당신으로 신앙시되고 있으며 아울러 긍정적인 신격적 면모가 뚜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성산의 당신화에서는 애월과 달리 김통정의 대결양상은 보이지 않는다. 김통정이 지역민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장수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에 당신으로 섬겨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산에서는 김통정이 긍정적 인물로 인식되고 있고, 지역민과 김통정의 관계가 주로 당신화에서 이야기된다.

- 나1. 삼달분향①
- 나2. 성산분향① <장수당>
- 나3. 성산분향②

나1의 삼달분향은 역적으로 몰린 황서국의 셋째 아들이 소를 잡아 아버지의 병

36) 김상기, 같은글, 181면.

윤용혁, 같은글, 51면.

37) 金東柱, 『역사유적1』, 『남제주군의 문화유적』, 남제주군·제주대박물관, 1996, 116~118면 참조.

을 고치고는 제주도로 입도하여 그 곳 사람들에게 현몽하여 당신으로 모셔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진성기본과 현용준본이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진성기의 자료에서는 현몽하여 당신으로 모셔지는 존재가 김통정인 반면 뒤의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하지만 앞의 자료에서 당신이 되는 존재가 김통정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고, 역적으로 몰려 제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상황이 김통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볼 때 김통정이 당신으로 모셔지는 것이라 생각된다. 나1은 김통정의 행적이나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그가 처했던 역사적 상황과 당신으로 좌절하게 된 내력담만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나2는 성격이 다르다. 곧 김통정이 그 곳에서 사람들에게 비쳐졌던 뛰어난 능력과 행적을 중심으로 당신이 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김통정이 당신으로 좌절하게 되는데는 두 가지 점이 부각된다. 하나는 김통정의 장수로서의 면모이다. “억만명 팔만명 군스를 호로 흠끼에 누린 풀 비여가듯기 몰술을 시겨두고”라고 해서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장수로서의 면모만을 뚜렷이 부각시키고 있다. 고내본항에서처럼 대결을 벌이지도 않고 역사적 사실과도 상관없이 장수로서의 능력만을 제시하면서 찬양하는 형태이다. 다른 하나는 사람들에게 샘을 파서 먹을 물을 제공해주는 문화영웅적 성격을 지닌 존재이다. 제주는 지질적 조건 때문에 샘이 드물고 물이 풍족한 지역이 많지 않다. 이런 곳기에 집집마다 샘을 파서 먹을 물을 마련해주는 김통정의 행위는 분명 당신으로서 숭앙받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통정이 제주민들을 위해 먹을 물을 마련해주는 수신적 존재로서의 면모는 전설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어 제주민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던 양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애월에서는 물을 마련해주는 김통정장군의 전설이 강하게 전승되는데, ‘햇부리샘물’과 같은 전설 자료는 ‘성산본향①’과 흡사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김통정이 죽으면서 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물이라도 실컷 먹으라고 바위로 뛰어내리면서 샘을 파주어 이 물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전설이 전승되는 애월에서는 단지 전설로만 전승될 뿐 당신화에서는 김통정의 먹을 물을 마련해주는 성격이 전혀 반영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성산에서는 그의 이런 행적이 당신으로 섬겨지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히려 김통정의 긍정적인 면은 당신화로는 성산에서 더 온전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애월의 당신화의 성격이 의도적으로 개변되었거나 의식적으로 김통정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

기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했음을 생각하게 한다.

나3은 간략한 자료로 김통정장군이 제주도로 들어와 만리토성을 쌓고 많은 군사 등을 통솔했다는 장수적 면모의 일면을 부각시키는 자료이다. 서사적 전개 없이 김통정의 제주에서 보였던 장수로서의 면모만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이상 성산의 당신화에서는 김통정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수로 제주민들을 위해 도움을 주는 긍정적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어 역사적 검토에서 살폈던 것보다도 부합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당신화가 나타날 수 있었던 데는 성산이 여동연합군과의 항쟁지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고 난의 평정 후 김통정에 대한 의식의 반영에 간섭을 받는 지역이 아니었기에 오히려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안덕면 다1. 광정당②

안덕은 애월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대칭되게 자리한 곳이다. 이 지역에도 김통정에 대한 당신화가 전해지는데, 그것이 다1의 광정당본풀이이다. 이 자료는 과양당, 선양당, 광정당 등 세 토착당신이 김통정을 칭찬한다는 점에서 김통정에 대한 제주민의 시각이 긍정적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졌었다.³⁸⁾ 하지만 과연 그런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1의 이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애월의 고내본향이 이입되면서 기존의 광정당본풀이와 뒤섞여 특이하게 변형된 자료로 판단되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안덕에서 전승되는 김통정에 대한 당신화가 다1 한 편 뿐이며, 광정당본풀이의 다른 각편과 비교할 때도 상당히 이질적인 면모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그 신화의 내용이나 구성 또한 애월의 고내본향과 거의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어 성산의 자료처럼 이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생성된 신화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 애월과 안덕에서 같은 성격의 자료가 아울러 나타난다면 그것은 애월의 것이 유입된 것이라 보아야 한다.³⁹⁾ 애월

38) 현길언, 같은책, 144면.

39) 어떤 경로를 통해 애월의 당신화가 안덕으로 이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애월의 심방이 어떤 이유에서 이주해오면서 그 곳의 당신화를 가져와 堂神과 堂名만 바꾸어 광정당②의 당신화 형태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 있다.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을 보면 소재지가 다른 당이 동일한 심방에 의해 당신화가 구송될 때 당신명과 당명만을 바꾸어 같은 내용의 신화가 그대로 구송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제주시의 오등본향과 해안본향①은 각기 다른 곳에 소재하는 당의 당신화임에도 강제길이라는 동일한 심방에 의해 같은 내용의 당신화가 당명

은 삼별초의 항전지로 가장 풍부한 김통정이야기가 전승되던 곳이기에 안덕의 다1이 애월로 건너가서 여러 고내본향의 각편들을 생성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안덕은 삼별초 항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던 곳이 아니며 김통정이야기가 활발히 전승되는 지역도 아니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에는 두 편의 서로 다른 광정당신화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광정당①에서도 첫머리는 다1과 마찬가지로 세 토착당신 관계를 먼저 제시하면서 시작된다.⁴⁰⁾ 하지만 그 다음은 말발을 절게 하여 제향을 받는 堂神에 대한 이야기로 달리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광정당은 영험한 당으로 믿어져 이 광정당에 대해서는 전설이 다수 채록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가 모두 말발을 절게 하여 말을 죽게 하는 당신의 영험과 그로 인해 생긴 말무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⁴¹⁾ 따라서 전설에 나타난 그 곳 지역민의 인식은 광정당①에 닿아 있음을 알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여기서 살피는 광정당②는 삼별초 항전과는 거리가 있던 안덕에서 고내본향과 같은 내용의 김통정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든 것도 그렇지만 여타의 광정당 관련이야기에 비해 너무 이질적인 성격을 지닌 자료라 할 수 있어 신빙성에 다소 의심이 간다.

다1의 광정당신화②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앞부분은 김통정이 세 토착당신들에게 징치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뒷부분은 이들 토착당신이 활을 쏘아 영토를 갈랐다가 다시금 말을 타고서 달려 제주를 삼분해 각기 영토를 다스리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다. 이런 광정당본풀이의 내용이 애월의 고내리 자료와 동일한 것임을 파악하기 어렵지 않다. 중국에서 파견된 삼장수 대신 토착당신 삼형제가 설정되어 있고, 용왕국 따남애기의 설정없이 세 당신이 영토를 가르는 데에만 중심을 둔다. 핵심적인 내용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행위와 기능, 징치과정도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고내본향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

과 당신명만 바뀐 채 구연되는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40) 광정당①에서는 광원당, 과양당, 광정당 3형제신으로 나타난다.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민속원, 1993, 529면)

41) 이에 대한 자료는 안덕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다. 「광정당 말무덤」(현용준, 『제주도전설』, 서문당, 1976), 「광정당 말무덤」(김영돈 외, 『제주실화집성(1)』,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5), 「광정당과 이형상목사」, 「광정당과 이목사」(현용준 외, 『대계』 9-3, 정문연, 1983) 등이 말발을 절게 하는 광정당신의 영험함을 이야기하는 전설이다.

의 자료로 보기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에서 파견된 삼장수 대신 토착당신 삼형제가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곧 외래신격 간의 대결이었던 것이 外來神과 土着神의 대결로 변모되어 나타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외래신격 간의 대결인 경우는 누가 승리를 거두건 제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식을 담은 존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토착신과 외래신의 대결일 때는 토착신은 제주민들의 의식을 대변하는 존재이고 따라서 이와 대결을 벌이는 외래신은 제주민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김통정이 외래신격으로서 이렇게 배척되어야 마땅한 존재였던가?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토착당신들에게 외래신이 퇴치된다는 것은 단순히 외래신격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며, 그 외래신이 제주도에 피해를 입혔다는 의식이 강했기에 토착당신들을 내세워 징치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1에서는 토착당신들이 왜 김통정을 징치해야 하는지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내본향에서는 중국에서 파견된 삼장수에게 김통정이 징치되는 까닭이 제주를 탐냈기 때문이라고 하여 명확히 밝히는 반면 다1에서는 김통정이 왜 토착당신들에게 징치를 당해야 하는가가 막연하다. 또한 김통정이 삼장수에게 징치되는 양상은 당신 화에서뿐만이 아니라 전설에서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 화소인데 다1의 자료를 제외한다면 모두 김통정이 중국의 삼장수나 김방경의 부하장수에게 징치될 뿐 토착당신에게서 징치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외지에서 들어와 제주에 큰 해를 입혔다고 믿어지던 존재가 토착당신에게 퇴치되는 이야기와 착종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외래신이 토착당신에게 퇴치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고종달(胡宗旦)설화와 관련이 있지 않나 여겨진다.

고종달은 전설에서 제주에 큰 인물이 날 것을 두려워한 중국왕이 제주에 단혈을 하도록 파견한 인물로 나타난다. 그가 제주 곳곳을 다니면서 단혈을 한 탓에 제주에는 왕도 나지 않고 범도 없는 곳이 되었다고 한다. 고종달은 지리서를 들고 다니면서 혈을 지르고 다녔다. 특히 그는 제주의 수맥을 잘라 제주가 황폐하고 척박한 불모의 땅이 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존재로 전설에서 뚜렷히 부각되어 있다.⁴²⁾ 이런 이야기는 대체로 물을 지키는 수호신이 물혈을 끊으러 온 고종달에 쫓기다가 발을 가는 농부의 쇠길마 밑에 있는 물그릇에 숨어 위기를 넘기고, 그 때문에 이런

42) 고종달의 단혈설화에 대해서는 현길언(같은책)과 문무병(『제주도의 生水說話와 물법신앙』, 『탐라 문화』 12,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1992)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지역에서는 물혈이 끓이지 않고 생수가 나서 사람들이 살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고종달은 제주에 혈을 질러 큰 인물이 나지 못하게 하고 수맥을 잘라 제주를 황폐한 땅으로 만들었기에, 중국으로 돌아가다가 매로 변한 광양당신에 의해 징치되고 만다.

(광양당은) 남쪽 한라 護國神社에 있다. 속설에 전하기를 한라산신의 아우가 나서 성스러운 덕이 있었고, 죽어서는 당신이 되었다. 고려 때 송나라 胡宗杲이 와서 이 땅을 壓禳하고 바다에 떠서 돌아가는데, 神이 화하여 매가 되어서 돛대 머리에 날아올랐다. 조금 있다가 북풍이 크게 불어서 종단의 배를 쳐부서 서쪽 지경 飛揚島 바위에서 죽었다. 조정에서 그 신령스럽고 이상함을 표창하여 食邑을 주고 廣壤王을 봉하고 해마다 조과 폐백을 나리어 제사하였고 本朝에서는 本邑으로 하여금 제사지내게 하였다.⁴³⁾

이것은 『東國輿地勝覽』의 기록으로, 같은 내용을 李元鎮의 『耽羅志』와 金錫翼의 『耽羅紀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제주에 단혈을 하여 해를 입히고 돌아가는 고종달을 제주도 호국당신격인 광양당신이 매로 변해서 쫓아가 징치하고 있다. 그런데 광정당신의 이런 정치양상은 광정당②에서 김통정이 징치되는 모습과 닮아 있다. 우선 관련되는 부분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시성계가 짐통정일 심으려
가니,
짐통정인 무쇠방석을
바당테레 덧겨
그 방석테레 놀아가
끼, ㄴ아앗이니
바당에 스신용신은
이젠, 새비몸이 되고
그 방석을 심어 땡기니
짐통정은
또시, 매가 되어 놀아가니
과양당 큰성님이 조롬에 좃아
놀아가고
짐통정이 모가질 움직거릴 때에
비늘이 야씩 들러지면

43) 이행 外譯, 『신증 동국여지승람』 5, 숲, 1996, 112~113면.

그 비늘 들러진 트명으로
 목도 비어 죽었습니다⁴⁴⁾

다1의 광정당²⁾에서 김통정이 광양당신에 의해 죽음을 당하는 대목이다. 토착당신 삼형제로의 변이가 있을 뿐 고내본향에서 중국의 삼장수가 김통정을 정치하는 모습과 거의 동일하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분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발견된다. 곧 고내본향에서는 삼장수가 협력하여 함께 김통정을 물리치는 반면 다1에서는 광정당신화임에도 광정당신의 역할없이 광양당신의 퇴치행위만 두드러진다. 堂神 삼형제가 김통정을 잡으러 간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정치는 광양당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치되는 양상도 김통정이 매가 되어 날아가는 것을 광양당 큰 성님이 쫓아서 날아가 물리쳤다고 하는데, 이것은 위의 광양당신이 매가 되어 胡宗杲의 배를 쫓고 '스신용신'의 도움을 받듯이 폭풍을 불게 해 호종단의 배를 쳐부수게 되었다는 점과 대응된다.

호종단의 성격은 여러모로 김통정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외래신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신적 성격과 목축신적 성격을 아울러 공유하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김통정이 夜來者型 출생을 보이는 수신적 존재이면서 물이 부족한 제주민에게 샘을 파서 물을 공급하는 긍정적 기능의 수신이라면 호종단은 수맥을 찾아 그것을 잘라 척박한 땅으로 만들고 사람들이 살지 못하게 하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수신적 존재이다. 아울러 김통정은 앞의 금덕리당신화에서 보았듯이 아무도 잡을 수 없는 龍馬를 잡아 자신의 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을 다루는 목축신적 존재라 할 수 있는데, 호종단 또한 馬穴을 찾아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富를 안겨준다든가⁴⁵⁾ 또는 마혈을 질러 제주에 말이 나지 않도록 하려다가 실패해 제주 말이 작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등과⁴⁶⁾ 같은 목축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비슷한 성격과 기능을 지녔지만 김통정은 긍정적인 반면 호종단은 부정적 작용을 하는 존재이다. 호종단은 토착당신에게 퇴치되어야 마땅한 존재이지만 김통정은 그렇지 않다. 광정당²⁾는 세월의 고내본향과 같은 계통의 것으로 안덕에 오면서 삼장수 대신 토착당신 삼형제가 설정되면서 김통정의 정치 모습이 호종단이 퇴치되는 것과 혼착된 채, 김통정이 광양당신에게 퇴치되는 모습으로 형상화되게

44) 진성기, 같은책, 539~531면.

45) 김영돈 외, 같은책, 870~874면.

46) 현용준, 같은책, 44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진다.⁴⁷⁾

다1의 광정당^②는 당신으로 좌정하는 과정을 밝히는 것이 아닌 이미 광정당신이 당신으로 좌정한 상태에서의 활약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또한 광양당·선양당·광정당의 세 당신이 제주를 三分한다는 관념이 두드러져, 안덕의 광정당이 라는 특정지역에 국한되는 당신 또는 당신화라는 의식 이상의 제주 전체를 관장하는 당신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담겨져 있다. 광양당신의 김통정 정치는 곧 제주에 큰 해를 입힌 호종단의 정치였던 것이며, 이 곳에서 김통정이야기가 유입되면서 잘못 섞여버린데 기인하는 것이다.

이상 당신화에 나타난 김통정이야기의 양상과 성격을 검토하였다. 이를 중요 당신화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고내본향(애월)	장수당(성산)	광정당(안덕)
堂神	중국에서 온 삼장수	김통정	광정당신 (과양당신·선왕당신)
對決樣相	중국의 삼장수 對 김통정	없음	세 토착당신 對 김통정
승리자	중국의 삼장수	없음	토착당신
김통정에 대한 인식	표면 - 부정적 이면 - 긍정적	긍정적	부정적
堂神의 중요 행적	김통정과 의 대결에서 승리 활을 쏘아 삼장수의 영토분할 용왕국 따님이기와의 혼인	김통정의 장수적 면모 집집마다 샘을 파서 먹 을 물을 마련해 줌	김통정의 정치 활을 쏘고 말을 달려서 영토 분치

제주도에는 김통정을 신으로 섬기는 堂과 반대로 김통정을 정치하는 신을 섬기는 堂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당으로는 성산의 장수당을 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뚜렷한 대결양상 없이 김통정의 장수적 면모와 수신적 성격을 찬양하면서 긍정적 신격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형태의 당신화가 전승된다. 후자로는 애월의 고내본향당과 애월의 광정당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곳에서의 당신화는 김통정과 삼 장수의 대결을 당신화의 중심에 두고 김통정의 정치가 당신이 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는 김통정을 정치하는 신을 모시는 당이기에 김통

47) 안덕은 호종단에게 혈이 질려 피해를 입었다는 의식이 강한 지역이다. 안덕면 화순리의 용머리는 왕이 날 지세였는데 호종단에게 꼬리와 잔등이 끊기면서 왕이 나지 못하게 되었다고 전한다.〔용머리〕, 현용준, 같은책, 47~49면.)

정의 성격은 부정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김통정의 뛰어난 능력과 긍정적 존재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어서 표면에 드러난 것과는 또다른 의식의 층위가 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데는 삼별초의 난이 평정된 후 그 곳에 주둔한 고려 및 몽고군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바탕이 되어 김통정을 정치하는 중국의 삼장수를 당신으로 모셨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같은 내용을 보이는 안덕의 광정당² 당신화에서는 토착당신 삼형제에게 김통정이 정치되는 것으로 나타나 특이한 변형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것은 본질적이기보다는 전승상의 혼탁에 의한 결과로 보이며 제주민들에게 부정적 존재로 인식된 것의 반영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제주도 당신화에서의 김통정은 제주민들에게 전체적으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인식되었고, 뛰어난 능력을 지닌 긍정적 존재로 믿어졌음에도 결국 패하고 말았던 역사적 한계 때문에 정치되어야 하는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되기도 했던 것이다.

4. 전설에 변용된 김통정이야기의 성격과 의미

김통정에 대한 전설은 삼별초가 본거지로 삼았고 김통정이 최후까지 항전을 벌였던 애월을 중심으로 북제주에서 주로 전승되는 자료이다. 이런 전승양상은 삼별초의 항전이 주로 한라산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전설에서의 김통정은 前章에서 살폈던 당신화와는 그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전설은 당신화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김통정을 비극적 장수로 형상화시키는 면모가 뚜렷하다. 또한 김통정이 제주에 들어와 있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자료는 있지만 용왕국 따님애기에게 반해 제주에 정착해 당신이 되는 삼장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리고 전설은 청자와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전승되기에 당신화에서 막연하고 압축적으로 이야기되던 것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전후맥락과 맞게 구술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면 김통정전설을 수록하고 있는 중요자료집을 대상으로 전설에 나타난 김통정이야기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우선 중요자료집에 수록된 김통정전설의 자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제목	수록자료집	채록자	전승지	제보자
가)	김통정장군	『제주도전설』	현용준	애월, 제주시	강태언(남,64) 외
나)	①김통정(1) ②김통정(2) ③애기엽개 말도 들어라	『제주설화집성』(1)	김영돈·김지홍 김영돈·윤치부 현길언	애월 어음리 한림 옹포리 애월 광령리	김승추(남,76) 장덕기(남,76) 고용혜(남,45)
다)	김통정장군	『구비문학대계』9-3	현용준	안덕 덕수리	이화옥(여,80)
라)	희뿌리샘물	『한국구전설화』9	임석재	애월 수산리	高氏(남,78)

가)는 김통정에 대한 가장 풍부한 전설 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애월의 姜泰彦이 구원한 자료를 중심으로 애월과 제주시의 제보자들에게서 부분적으로 달리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모아 함께 싣고 있다. 그런데 가)에서 강태언 자료는 여타 자료들과 비교해 볼 때 김통정에 대해 전해지는 여러 화소들 거의 대부분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어서, 풍부한 구술내용을 보이던 강태언의 원래 자료에 채록자가 여타 화소들을 덧붙여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런 가)의 중요화소는 아래자형 출생, 아기장수적 면모, 재를 이용한 있는 곳 은폐, 적을 돕는 아기엽개, 김방경 부하장수와의 대결, 샘을 만들어 식수 제공, 아내 및 자식의 죽음 등으로, 다른 자료들도 이들 화소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나) 또한 애월을 중심으로 하여 세 편의 조사자료를 수록하고 있다. 나)①은 비교적 장편으로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김통정의 용마 포획, 재를 이용한 있는 곳 은폐, 적을 돕는 아기엽개, 중국신장들과의 대결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용마 포획 화소는 여타의 전설 자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것이지만 금덕리 당신화에 동일한 김통정의 행적이 보여지고 김통정의 아기장수적 면모와도 연결되는 화소임은 이미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나)②는 김통정의 아래자형 출생만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여타의 자료에서도 흔히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지렁이가 아닌 지네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나)③은 아기엽개가 관군들에게 견고하게 만든 성문을 열 수 있는 방도를 알려주어 김통정군이 패하게 되었다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다.

다)는 채록지가 안덕면 덕수리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자료이다. 안덕면은 김통정이야기가 활발하게 전승되는 지역이 아니며, 또한 김통정이 토착당신들에게 정치당하는 내용의 광정당 당신화가 전승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의 내용은 당신화에서 보였던 김통정을 정치하는 토착당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아래자형

출생이라든가 아기장수적 면모, 그리고 김통정과 김방경 부하장수 간의 대결양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애월을 비롯한 북제주 지역의 전설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광장당② 당신화에서는 김통정의 부정적 형상화가 강했지만 이 곳에서 전승되는 전설에서는 북제주 지역과 마찬가지로 김통정에 대한 긍정적 존재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희뿌리샘물’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민들에게 먹을 물을 마련해주는 존재로서의 김통정이 부각되는 자료이다. 라)에서는 이와 함께 재를 이용해 있는 곳을 은폐하는 화소와 김방경 부하장수와의 대결 화소도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에는 김통정 시절 토성을 쌓을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벌레를 잡아먹었다고 하는 언급이 들어있어서, 이것은 가)의 각편 중 김통정 때 큰 흉년이어서 사람들이 人糞을 먹었다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역사기록을 검토하면서 삼별초 항쟁이 있는 직후에 있었던 큰 흉년에 대한 이야기가 그 시절 큰 사건인 김통정의 항쟁에 연결되어 막연히 김통정 때라고 지칭하면서 잘못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이상의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김통정전설의 전승에 있어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화소들은 다음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 a. 아래자형 출생
- b. 아기장수적 면모
- c. 재를 이용한 있는 곳 은폐
- d. 적을 돕는 아기업개
- e. 샘을 만들어 식수 제공
- f. 김방경 부하장수와의 대결

a의 아래자형 출생은 당신화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화소이지만 전설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찾아지는 요소이다. 과부 또는 중국 정승의 딸이 지령이와 交通해서 김통정을 낳았다는 내용이다. 김통정의 출생이 이런 아래자의 탐방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데는 여타의 자료에서도 전혀 이견이 없는 듯하다. 김통정의 이런 아래자형 출생은 b와 f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김통정이 지령이의 자식이기 때문에 어깨에 날개가 돋아 있으며, 온몸이 비늘로 덮혀 있어 결코 패하지 않는 불사의 존재로 믿어진다 하는 것이다. 곧 김통정의 신이한 출생은 뛰어난 장수로서의 행적을 보이게 하는 근원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김통정의 아래자형 출생이 지니는 의미는 단순히 뛰어난 장수로서의 능력을 보증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 아니며, 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점은 아래자설화가 씨족의 시조나 부족국가의 국조의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있어 시조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이다.⁴⁸⁾ 그리고 특히 옛 백제권역이 아래자설화가 신화적 성격을 유지한 채 전승되던 지역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런데 김통정의 삼별초가 제주로 입도하기 전에 오랫동안 진도를 거점으로 활약했었으며, 이 곳 또한 백제권역이라 할 수 있다. 아래자설화가 마한의 옛 신화 형태였고 그것이 후대에 백제의 무왕 및 후백제의 견훤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서대석에 의해 지적된 바 있는데,⁴⁹⁾ 김통정의 아래자형 출생은 바로 이것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곧 김통정이 새로운 통치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 신성성과 당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옛 백제 지역의 시조신화를 끌어와 획득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통정의 이런 아래자형 출생에 대해 별다른 거부감없이 전체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김통정이라는 존재의 새로운 시조로서의 성격이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되고 받아들여졌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김통정의 이런 아래자형 출생과 관련해 또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아래자가 수신적 성격을 지닌 존재라는 점이다. 이것은 e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래자설화에서 아래자는 지렁이, 뱀, 용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체로 물과의 친연성이 강하고, 따라서 아래자설화를 서대석은 水父地母型 신화라고 파악하고 있다.⁵⁰⁾ 지렁이는 비가 오면 땅 속에서 기어나온다. 물과의 친연성이 확인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아래자설화의 자료들을 보면 이런 출생을 한 인물이 수신적 혈통을 이어받았지만 수신으로서의 행적이나 기능을 보여주는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김통정은 e에서 볼 수 있듯이 수신적 기능을 하는 존재로 믿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물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제주민들을 위해 물이라도 풍족히 먹으라고 하면서 샘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은 수신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는 양상이라 하겠다. 이런 면모는 단지 전설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장수당과 같은 당신화에도 찾아볼 수 있어 그가 물을 다루는 수신적 존재임이 폭넓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8) 서대석, 「백제신화연구」, 『백제논총』 1집, 1985, 39~50면.

49) 서대석, 같은글.

50) 서대석, 같은글, 40~50면.

b의 김통정의 아기장수적 면모 또한 당신화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전설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요소이다. a의 아래자형 출생이 통치자로서의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장치였다면 b는 결국 좌절하고 마는 역사적 한계성을 아기장수로 형상화시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김통정전설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아기장수적 면모는 김통정이 날개가 돋아있고 온 몸이 비늘 또는 쇠갑옷을 입고 있으며 도술을 쓸 줄 안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까닭은 지렁이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기장수전설에서 아기장수는 일반적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지배질서에 순응하는 부모나 동네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김통정과 같은 역사적 인물이 아기장수로 형상화될 때는 그의 역사적 행적이 바탕이 될 수밖에 없기에 뛰어난 능력으로 지배집단의 부당함에 항거하고 대결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패배하고 마는 형태로 달리 나타난다.⁵¹⁾ 그리고 이 경우 아기장수는 쉽게 죽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사소한 약점이 적들에게 알려져 죽게 되거나 스스로 죽는 방법을 알려주어 죽음을 택하는 양상을 보여준다.⁵²⁾ 김통정은 온몸에 비늘이 덮여 있어 죽일 수 없었지만 한 장수가 새로 변해 유혹하고 이때 벌어진 비늘 틈새로 다른 장수가 칼을 찔러 죽이게 된다. 결코 죽지 않는 존재라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결국 패해서 죽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에 그 죽음이 이처럼 안타깝고 아쉽게 형상화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김통정의 아기장수적 면모는 용마의 출현으로 이야기되고 있기도 하다. 나)1에서만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무도 잡지 못하는 빼어난 용마를 김통정이 잡아서 자신의 말로 만들고 이 말을 타고서 장수적 행적을 보이고 있다. 용마는 일반적으로 아기장수의 죽음과 함께 출현하여 그 비극적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제주도 김통정이야기에서는 김통정의 장수의 면모를 돋보이게 하는 형태로 특이하

51) 임철호는 아기장수 이야기가 후기로 전승되면서 아기장수가 일반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죽임을 거부하다가 죽음을 대가를 받아내고 죽어준다거나 부조리한 사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것으로 변이된다고 한다.(임철호, 『설화와 민중의 역사의식』, 집문당, 1989, 150면) 이 점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더 근본적으로 역사적 인물이 아기장수에 결부될 때는 역사적 행적이 반영될 수밖에 당연히 이런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다.

52)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은 김덕령이다. 그는 아무리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 것을 “만고충신 김덕령”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자 스스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 죽음을 택한다. 이런 자료는 『대계』 1-4 「김덕령 일화」, 『대계』 1-7 「김덕령 장군 일화」, 『대계』 5-1 「만고충신 김덕령」, 『대계』 5-3 「김덕령남매의 힘내기」, 『대계』 6-2 「유성룡과 김덕령」 등 다양하게 찾아진다.

게 변형되어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그의 자식이 비늘과 날개가 달린 아이 혹은 매로 설정되어 있어 아기장수의 모습을 지닌다는 것이다. 김통정 아내와 그 자식의 죽음 부분에서 이 점이 확인된다. 김통정이 아기장수이고 날개가 돌아있기에 매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김통정의 자식이 곧 어미의 胎內에서 매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통정을 죽인 후 그 아내를 잡아 뱃 속의 아이를 확인해보니 새끼매가 아홉 마리가 있었다고 한다. 자료에 따라서는 적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아기업개가 김통정의 자식을 가졌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 때의 태내 아기는 더 구체적으로 비늘이 달리고 날개가 돋은 아이로 형상화된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아기장수가 김통정 당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도 거듭 아기장수적 존재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 번의 좌절로 그들의 바램이 끝났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른 변혁의 시도를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결국 좌절하고 만다. 거듭된 아기장수의 설정과 좌절은 그만큼 김통정에 대한 민중의 염원이 절실했다는 것이며 그 좌절감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기장수는 지배층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이지만 피지배층으로서는 구원자적 영웅이다. 고통받는 민중, 도탄에 빠진 백성, 지배층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할 뿐인 피지배층을 대변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메시아적 영웅상을 띠고 있는 존재인 것이다.⁵³⁾ 제주민들은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고 그들의 염원을 실현시켜 줄 민중영웅으로 김통정을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김통정은 패하여 죽음을 맞이했고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김통정의 아기장수적 면모는 김통정이 그들의 구원자로서 승리하기를 바랬고 승리할 수 있을만한 존재였다고 믿었음에도 결국 좌절당하고 말았던 현실의 안타까운 반영인 것이다.

c는 대부분의 당신화나 전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화소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으므로 간략히 살피기로 한다. 김통정은 재(灰)와 빗자루로 세금을 걷었고, 그 재를 토성에 뿌려두었다가 적이 나타나면 말꼬리에 비를 달고 달리게 해서 적이 향방을 잃고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별초가 거점으로 삼았던 성이 아주 견고하게 지켜졌으며 쉽사리 공략되지 않았음을 상징한 것으로, 이럴 수 있었던 데는 그들이 있는 곳을 찾지 못하도록 김통정이 재를 이용해 섬을 감추는 도술을 부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귀본향본풀이에서 바람운이

53) 이혜화, 「아기장수전설의 신고찰」, 『한국민속학』 16집, 민속학회, 1983, 270면.

지산국과 함께 제주로 입도해서 안개를 피워 고산국을 따돌리고자 하는데 이것과 동일한 행위임은 앞서 지적한 바이다. 그리고 김방경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 그의 도술이 능해서 이런 연막이 소용없게 된다고 하는 것은 고산국이 구상나무로 닭을 만들어 울게 해서 날이 밝게 했다는 것에 대응한다.⁵⁴⁾ 곧 c는 삼별초 항전 당시의 혼돈상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며, 제주에 머물던 김통정군을 쉽게 공략하지 못하는 고려 관군의 모습과 이런 기반에는 김통정의 도술적 능력과 지략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찾아볼 수 있는 화소이다.

d의 '적을 돕는 아기업개'도 당신화와 전설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화소이다. 그런데 당신화에서 애월의 고내본향에서만 이런 d의 화소가 나타나고 있고, 전설도 가), 나)1·나)3, 라) 등의 제보자가 애월에 거주하는 사람의 자료라는 공통점이 뚜렷하여 d의 배경이 되는 항파두리성을 중심으로 애월에서 주로 전승되는 자료가 아닌가 여겨진다.

d의 적에게 성문을 열 방도를 알려주는 아기업개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호국여산신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김방경장군이나 중국에서 파견된 장수는 토성의 철문이 너무 견고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돌고만 있었는데, 아기업개가 풀무를 걸어 쇠문을 불로 녹이고 들어가도록 그 방도를 알려주었고 때문에 성을 쉽게 함락시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기업개의 존재는 단순하지 않다. 도술을 부리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장수들도 공략하지 못해 찢찢매는 것을 아기업개는 쉽게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 아기업개의 이런 성격과 기능은 호국여산신설화에서 그대로 볼 수 있는 양상이다.

호국여산신설화에서는 여산신이 표모나 노파의 모습으로 출현해 적군의 난공불략의 성을 쉽사리 공략할 방도를 알려주어 어렵지 않게 승리를 거두도록 한다. 그런데 호국여산신설화는 반대로 적군이 아군을 공략하지 못해 찢찢매 때 노파나 표모가 출현해서 적에게 정보를 주어 견고한 성이 함락되고 군사들이 몰살당하는 양상을 보이는 형태로 부정적 인식을 담은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통정이야기에서 d부분은 바로 후자인 적에게 정보를 제공해서 아군을 몰살당하도록 하는 호

54) 서귀본향본풀이는 赤松智城과 秋葉隆의 『조선무속의 연구』 자료편에 있는 것만 제주땅에서 솟아 난 바람운과 외지에서 들어온 고산국, 지산국의 결합으로 나타날 뿐이고, 진성기의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민속원, 1993), 장주근의 『한국의 민간신앙』(동경 금화사, 1973), 현용준의 『제주도무속자료사전』(신구문화사, 1980) 등에서는 모두 중국으로부터 바람운과 지산국이 먼저 제주도로 피해 들어오고 고산국이 그 뒤를 쫓아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여산신설화 형태인 것이다.

호국여산신적 존재는 설화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부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상반된 성격인식 양상은 이야기를 전승시키는 집단과 호국여산신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상대편을 돕는 경우는 부정적 기능을 하는 여산신이고 아군을 돕는다면 긍정적 기능의 호국여산신으로 인식된다.⁵⁵⁾ 김통정은 제주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호국여산신의 도움을 받아 승리를 거두길 바라는 존재이겠지만, 고려정부군 입장에서는 반대로 반역도이기에 호국여산신의 도움을 받아 물리쳐야 할 대상인 것이다. 아기엽개는 바로 김방경군을 돕는 호국여산신이고, 따라서 김통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부정적 성격인 셈이다. 『高麗史』에는 고려군이 제주의 삼별초를 물리칠 때 호국여산신의 陰助가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5월에 羅州 錦城山神을 봉하여 定寧公으로 삼았다. 이보다 앞서 나주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신이 무당에게 내려 말하기를, ‘진도·탐라를 평정하는 일에 나의 힘이 있었는데, 장사들은 상을 주고 나에게서는 녹을 주지 않으니 무슨 일이나 반드시 나를 봉하여 定寧公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고을 출신 寶文閣侍制 鄭興이 그 말에 혹하여, 왕에게 아뢰어 금성산신의 직을 봉하고, 또 그 고을의 祿米 5석을 거두어 해마다 신사에 보내게 하였다.⁵⁶⁾

이것은 물론 제주사람들이 이렇게 여기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것에 대한 기록은 아니다. 하지만 그 당시 호국신격의 도움으로 삼별초의 난이 평정되었다는

55) 권태효, 같은글, 호국여산신은 나라에 전쟁이나 변란이 생겼을 때 출현하여 나라를 지켜주는 존재로, 이런 여산신이 노파나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 적을 물리칠 방도를 알려주어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내용의 설화가 다양하게 찾아진다. 그런데 이런 설화에서는 오히려 상대편을 도와 승리하도록 하는 부정적 성격으로 인식되는 자료들도 적지 않은데, 이처럼 상반된 성격인식 양상이 나타나는 까닭은 설화의 전승집단이 호국신격을 두고 승리하는 쪽에서는 신을 숭배하는 입장에서 설화를 전승시키게 되고 패하는 쪽에서 상대편을 돕는 신격을 원망하는 입장에서 전승시키기 때문이다. 다자구할미설화를 예로 든다면 다자구할미는 나라에 해를 끼치는 도적을 잡도록 하거나 왜병을 물리칠 수 있게 하는 호국신적 존재이지만 반대로 그 할미 때문에 견고한 성을 적에게 빼앗겨 패망했다고 하는 형태의 이야기들도 아울러 전해지고 있다. 특히 『대계』 7-13의 「조수만장군과 다자구털자구 계략」은 아기장수인 조수만장군이 반란을 도모하지만 이런 다자구할미의 출현으로 결국 패하고 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김통정이야기의 아기엽개 대목과 상통하는 자료양상을 보여준다. 곧 새로운 영웅을 갈망하는 민중의 입장에서는 이런 존재가 원망의 대상이었고, 나라의 입장에 선 사람들에게는 이런 호국신격의 도움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었으니 숭앙하는 입장인 것이다.

56) 『高麗史』禮志 雜祀條

인식이 폭넓게 전해지고 있었음은 알 수 있다. 김통정과 삼별초를 옹호하던 제주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호국신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때문에 김통정이 패한 것을 호국여산신의 변형된 모습인 아기업개의 도움 탓으로 돌려 원망한다. 정상적인 대결에서는 결코 패하지 않았을텐데 호국여산신이 도와서 결국 성이 함락되었고 김통정군이 패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d는 김방경군을 도왔다고 전해지는 호국여산신을 원망하고, 항파두리성의 함락에 대한 지역민들의 안타까움이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e의 샘을 만들어 지역민들에게 食水를 제공하는 화소 또한 당신화와 전설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다. e는 김통정이 수신적 성격을 지닌 긍정적 존재라는 것을 뚜렷하게 부각시키는 화소이다. 전설은 증거물인 햇뿌리샘물이 있는 애월에서 주로 전승되는데 여기에서 김통정은 죽어가면서 또는 성이 함락당해서 피하는 시점에 그곳 사람들을 위해 샘물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아아 불쌍한 백성들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물이나 실컨 목게 이 바우에서 물이나 마음것 목게 솟아나라”라고⁵⁷⁾ 하면서 샘을 파주어 마지막까지도 제주민들을 위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주도는 대부분 현무암 지질로 물이 부족한 지역이다. 육지에서 사람들이 하천을 중심으로 촌락을 형성하고 사는 것과 달리, 제주의 하천은 건천으로 물이 흐를 때가 드물고 비가 오면 범람을 해서 오히려 이 곳을 피하며 대신 물이 고여 있는 샘물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된다.⁵⁸⁾ 이렇게 물이 부족하고 샘이 중요한 지역이기에 샘을 만들어 풍족한 물을 공급해주는 김통정의 모습은 지역민들이 그를 얼마나 긍정적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김통정의 이런 긍정적인 면은 애월의 당신화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애월의 당신화에서는 김통정을 징치하는 중국의 삼장수가 당신으로 섬겨지면서 김통정은 퇴치되어야 할 대상일 뿐이고 김통정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이나 면모는 제외되거나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여몽연합군이 항파두리성을 함락시키고 삼별초의 항전이 종식되면서 그 곳에 고려군 및 몽고군이 주둔하게 되는데, 이들을 두려워하면서 김통정을 징치하는 삼장수를 당신으로 내세웠고 김통정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는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자 했을 것임은 앞서 지적한 바이다. 여기에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당신화가 개인적인 전승을 보이는 전설보다는 훨씬 경직되어 전승되고 있

57) 임석재, 같은책, 205면.

58) 泉靖一(洪性穆 譯), 『濟州島』, 愚堂圖書館, 1999, 75~81면.

음을 파악할 수 있다.

f의 김방경장군 부하장수들과의 대결은 곧 김통정의 비극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대목이다. f 또한 에월의 고내본향을 비롯한 당신화에서도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 화소로, 당신화에서는 이런 대결에서 김통정을 물리치는 것이 당신이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특히 그 의미 비중이 컸던 부분이다. 당신화에서는 대체로 김통정을 물리치는 존재가 중국의 삼장수로 나타난다. 하지만 전설에서는 김승추가 구연한 자료를 제외한다면⁵⁹⁾ 김방경의 부하장수들과 대결을 벌이다 죽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역사기록에서 여몽연합군이 항과두리성을 함락시킨 뒤 성에 남아있던 삼별초 무리를 김방경이 처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역사적인 경험의 반영이 전설에서 보다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하지만 대결양상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영웅신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 김통정은 성이 함락되자 바다에 무쇠방석을 던져 그 곳으로 날아가 앓았고 김방경의 부하장수들은 새와 모기로 변해서 김통정을 쫓아온다. 전설에서는 변신을 하지 않고 그 자체로 날개가 있고 비늘이 덮여 있는 불사의 존재이지만, 당신화에서는 김통정이 매로 변하기도 하고 새우로 변하기도 해서 '해모수나 화백의 변신 대결' 또는 '수로와 탈해의 변신 대결'과 같이 신격들 간의 변신 대결 양상을 따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김통정은 온몸이 비늘로 덮여있는 불사의 존재임에도 비늘 사이의 틈이 약점이 되어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데, 희랍신화의 아킬레우스나 『리벨룽겐의 노래』의 지크프리트가 불사의 존재여야 함에도 사소한 실수에서 벗어난 치명적 약점 때문에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이다. 따라서 f의 김통정의 대결 및 죽음 부분은 전래적인 신성인물의 변신대결담에 근거하면서 아울러 비극적 영웅신화에 그 맥이 닿아 있는 것이다.

f는 곧 김통정의 영웅신적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면서 아울러 결코 죽어서는 안되는 존재임에도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만데 대한 안타까움을 반영한 화소라 하겠다.

이상 전설에서 중요하게 나타나는 화소들을 검토하였다. 이런 전설에서는 前章에서 살폈던 당신화와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점들이 확인된다.

첫째, 전설에는 당신화에 수용되지 않은 다양한 화소들이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자형 출생과 아기장수적 면모 등에 대한 것은 당신화에서 거의

59) 이 자료에서는 김통정이 중국의 신장들에게 징치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김통정을 중국의 대신이라고 하면서 구술했기 때문이다. (김영돈 외, 『김통정(1)』, 같은책, 32면)

언급되지 않거나 막연하게 압축되었던 반면 전설에서는 이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화소로 이야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화소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왕이 되는 존재의 암시라든가 민중의 염원을 실현시켜줄 존재임을 나타내는 화소임을 염두에 둔다면 당시 정권에 반체제적인 성격이 강해서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승시키는 당신화에서는 쉽사리 수용되지 못했거나 심방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제외시키고자 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전설에서는 당신화보다 김통정을 훨씬 더 긍정적 인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위에서 든 여섯 개의 화소를 통해 이 점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이다. 민중영웅적 성격을 지닌 존재이고, 지역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수신적 존재이며, 그의 패배에는 안타까움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비록 김통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으나 이것은 전승상의 변질이거나 패하지 않아도 될 것을 안타깝게 패한데 대한 아쉬움의 반영이라 여겨진다. 당신화에서 특히 애월의 고내분향과 같은 경우는 탐라에 욕심을 내고 탐라의 풍족한 생산물을 차지하기 위해 제주에 눌러앉은 부정적 인물로 표면적으로는 그려지지만 전설에서는 제주민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그들의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로 김통정이 인식되고 있다. 이 점은 전설이 비록 마을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것이기는 해도 전승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들의 바람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당신화보다 더 솔직히 반영된데 따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또한 개인적 차원의 전승이기에 당신화와는 달리 지배집단의 이념에 영합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간섭도 배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셋째, 형태적인 면으로 당신화에서 막연하게 압축되어 있던 부분들이 전설에서는 비록 이야기가 토막져서 한두 화소만을 중심으로 전승되는 경향은 있지만 구체적이고 짜임새있게 그 내용이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설은 집단이 공유하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개인을 대상으로 하여 전달되는 것이기에, 전후맥락이 유기적으로 짜여진 채 설명해야만 청자들이 쉽사리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에 반해 당신화는 심방이 굿판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의 내력을 밝히는 것이기에 청중들의 자유로운 간섭이 허용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당신화는 마을의 역사 또는 마을에서 이야기되던 바가 토대가 되기에 개략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어도 신앙민들이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며, 아울러 문으로 전승되면서 압축적인 형식을 취하게 되는 점도 이런 한 요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신화에서 모호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목은 전설과 비교해서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 때 보다 바람직한 이해 방향이 될 것이다.

5. 마무리

제주도는 삼별초가 최후의 대몽항쟁을 벌인 곳으로 김통정과 관련된 구비전승물이 다양하게 전해진다. 당신화 및 전설을 비롯해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민요에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은 이들 자료에 반영된 의식이 일률적이지 않고 김통정을 긍정적인 존재로 형상화시키는 자료가 있는가 하면 부정적 존재로 형상화시킨 자료도 있어 과연 어떤 것이 김통정이야기의 참다운 모습인가 하는 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제주민들의 갈등양상이 잘 드러난다고 보아 부정적인 각도에서 논의를 했었다. 하지만 그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당신화나 전설을 살펴보았을 때 김통정은 부정적 인물이기보다는 긍정적 인물의 성격이 확인됐다. 성산의 장수당에 전하는 당신화나 애월의 금덕리 당신화는 김통정이 당신으로 섬겨지는 곳으로, 제주민들을 위해 샘을 파서 식수를 공급하고 겁탈당하는 부녀자들을 구하는 등 긍정적 기능을 신격의 면모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전설에서는 더 나아가 아래자형 출생을 하여 마한 백제 계통의 건국시조가 되는 신화적 성격을 계승한 존재이고, 아기장수로서 억압과 착취를 당했던 제주민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세상을 구현할 민중영웅으로서 형상화되고 있다. 또한 죽어가면서도 지역민들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수신적 존재로 믿어지기도 했고 그의 죽음과 패배에는 안타까움이 담겨져 있다. 당신화나 전설에서의 이와 같은 긍정적인 면모는 그 성격상 민중들의 호응을 온전하게 얻을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이에 반해 김통정 시절 토성을 쌓을 때 지독한 흉년이어서 人糞을 먹었다고 한다든가 광정당 당신화에서 김통정이 토착당신 삼형제에게 징치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으로 각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승과정상의 혼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슷한 시기의 큰 흉년을 김통정 시절로 막연히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광정당 당신화도 애월의 고내분향 당신화가 안덕에서 토착당신에게 징치되는 고종 달전설과 섞이면서 변형되어 토착당신에게 김통정이 징치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본론에서 언급한 바들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다.

김통정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역사기록에서 보면 제주민들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심한 착취와 수탈의 대상으로 고통을 당했었기에 삼별초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이었고, 삼별초의 입도를 돕는 등 삼별초의 항전에 동조적이었다. 또한 삼별초는 조세선을 포탈하여 그들의 군비를 충당하였고 그들의 군대 유지를 위해 제주민들을 수탈하거나 착취하지는 않았기에 제주민들과의 갈등 소지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역사기록을 통해 김통정이 제주민들에게 긍정적 존재로 받아들여졌을 것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김통정이야기는 당신화로도 전한다. 제주에는 김통정을 신으로 섬기는 당과 반대로 김통정을 정치하는 장수들을 당신으로 섬기는 당으로 양분된다. 전자에서는 김통정의 장수적 면모와 수신적 성격을 찬양하면서 긍정적 신격으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형태의 당신화가 전승된다. 반면 후자는 김통정의 정치가 곧 당신이 되는 계기가 되기에 김통정이 제주에 탐을 내는 존재라 하여 표면적으로는 부정적 형상화가 뚜렷하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김통정이 뛰어난 능력과 긍정적 존재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어서 표면에 표출된 것과는 다른 의식의 층위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것은 특히 고내분향의 경우 삼별초의 난이 평정된 후 여몽군이 그 곳에 주둔하면서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 바탕이 되어 김통정을 정치하는 삼장수를 당신으로 삼았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당신화에서 김통정은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인식이 바탕이 되고 있으며, 뛰어난 능력을 지닌 긍정적 존재임에도 결국 패하고 마는 역사적 한계 때문에 정치되어야 하는 부정적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했다.

전설로 전해지는 김통정이야기는 김통정을 긍정적 존재로서 인식하는 양상이 뚜렷하다.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화소는 아래자형 출생, 아기장수적 면모, 재를 이용한 있는 곳 은폐, 적을 돕는 아기엽개, 샘을 만들어 식수 제공, 김방경 부하장수와의 대결 등이다. 이 중 특히 아래자형 출생과 아기장수적 면모는 전설에서만 보이는 화소로, 반체제적이고 새로운 세상을 건설한다는 의미를 함축하는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자형 출생은 삼별초가 진도로부터 근거지를 옮겨오면서 백제 지역의 건국시조신화를 가져와 김통정에게 결부시킴으로써 왕이 될 인물이라는 당위성을 내보이는 것이고, 아기장수적 면모는 김통정이 고통받고 착취당하는 세상으로부터 구원해줄 존재로 믿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동체를 대상으로 전승되는 당신화와 달리 전설에서는 반체제적이고 변혁을 바라는 민중의 심리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김통정이야기를 역사적 사실, 당신화에 변용된 이야기, 전설로 변용된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김통정이 제주민들에게 긍정적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염원을 실현시켜 줄 영웅상으로 믿어졌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부정적 인식의 자료들이 있게 된 배경을 찾아보았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결론의 도출이기는 하지만 아쉬움도 적지 않다. 이에 관련된 민요 자료가 제대로 거론되지 못했으며, 김통정이야기를 넘어서 그 이상을 포괄하는 제주도당신화와 전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런 점들을 과제로 남긴다.

〈Abstract〉

A study on Tales about Kim Tong-Jung ;
the various aspects in the process of the transmission from
myths of village god(堂神話) and legends

Kwon, Tae-Hyo

Kim Tong-Jung is a chief of Sambyulcho(三別抄), which resisted to death to the allied forces between Koryo and Mongo. In Cheju-island, Kim Tong-Jung was not just a historical man ; he seemed to be a village god and also a popular hero who appeared in some legends. Thus, if you look synthetically into historical documents, myths of village gods, legends, you can clearly find out the actual fact of the tales about Kim Tong-Jung.

According to historical documents, Sambyulcho kept friendly realations with inhabitants in Cheju-island : Cheju people helped sambyulcho go into Cheju-island, and supported them. Sambyulcho didn't plunder villages and didn't govern oppressively while they stationed themselves in Cheju-island. That is, Kim Tong-Jung seemed to be an affirmative popular-hero.

In addition, Kim Tong-Jung was described as a brave commander who helped inhabitants, so he was considered as a god and was enshrined in some villages. On the contrary, he had a negative image ; he was reported to be conquered by three commanders from China, because he desired to govern Cheju-island. But, nevertheless, even the latter material value him affirmative, and his good image appeared better in legends. Legends said he was born holily like deities. The birth means growing to be a King. And also he was described as a baby-commander who should build a new future world, this means he was a messiah to Cheju people.

Kim Tong-Jung appeared mainly to be affirmative from the tales about him, and also you can find some material in which he appeared to be

negative. Until now, some researchers thought that he was a negative person, because he was an alien ; he was thought as a kind of a potential trouble-maker.

However, historical documents, myths, and legends about him show us that his negative image was just due to misunderstandings in the process of transmission. In fact, he was a man of worship who was expected to be able to come true Cheju people's dearest wish. But we know he unluckily failed to do this in the end.